



영화 아이 캔 스피크 한장면(사진왼쪽)·덩케르크 한장면

3분기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

아이 캔 스피크 · 덩케르크

지난 7월1일부터~9월30일까지 개봉작 대상 심사 영등위, "위로와 희망적 메시지 주는 영화 다수 선정"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올해 3분기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로 극영화 한국 부문 아이 캔 스피크를 비롯해 극영화 외국 부문 할리우드 영화 덩케르크(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다큐멘터리 부문 미국·프랑스 합작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감독 로저 로스 윌리엄스 감독), 애니메이션 부문 한국 애니메이션 '소나기'(감독 이재훈) 등 총 4편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영등위는 매년 각 분기 개봉한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국내외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작품 중 교육적·예술적 가치, 작품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를 선정한다.

3분기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개봉작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영등위는 "올해 3분기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화'로 따뜻한 위로와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다수 선정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영등위가 일린 수상작에 관한 간단한 내용과 선정 이유다.

아이 캔 스피크는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화다. 위안부 피해자라는 아픔이 있는 할머니가 9급 공무원 청년에게 영어를 배우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상을 향해 진실을 증언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이 영화는 기존 위안부 영화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덩케르크'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에서의 연합군 퇴각 작전을 재연했다.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전쟁의 참상과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은 전체 관람가 등급 영화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폐증을 치유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았다.

3살 때 자폐아 진단을 받고 말문을 담은 주인공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대사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원하던 꿈을 이루는 모습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소나기' 역시 '전체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다. 황순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낸 아날로그 형식으로 섬세하면서도 서정적인 영상미가 돋보인다.

/뉴시스

전북 현대 로페즈, K리그 35라운드 MVP 선정

전북 현대를 우승 길목으로 인도한 로페즈가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5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뽑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2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강원FC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0 완승을 이끈 로페즈를 3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낸 전북은 2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4점 차를 유지하며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다.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의 라운드 MVP선정은 K리그와 스포츠투아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투아이 지수(특정 슈팅, 패스, 볼 경험, 드리블 돌파, 공간 침투 등 주요 경기 행위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해 산출한 지수)와 연맹 경기평가회의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로페즈는 전체 4번의 슈팅 중 3개를 유효슈팅을 만들어내는 공격력과 3번의 키패스를 성공시키며 투아이 지수 총점 372점을 기록했다.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는 송승민(광주)-마그노(제주)가 이름을 올렸다. 로페즈-이재성(전북)-롤리나(포항)-이승기(전북)

윤일복(서울)이 미드필더로 뽑혔고, 안필선(포항)-김정현(광주)-박진표(제주)가 수비수로 선정됐다. 최고 골키퍼의 영예는 김호준(제주)에게 돌아갔다.

챌린지 35라운드 MVP는 경남FC 정



현철이 차지했다.

/뉴시스

다저스, 월드시리즈 1차전 커쇼 앞세워 선점

70닝 1실점 11탈삼진 터너 투런포 '승리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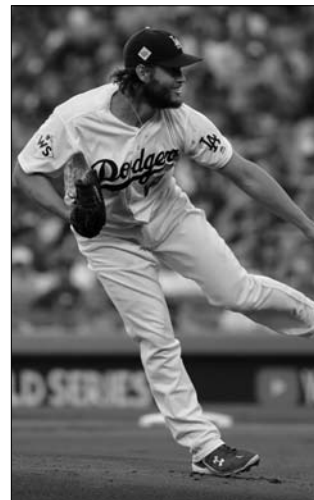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LA 다저스가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는데 2시간 28분이면 충분했다.

다저스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2017 월드시리즈(7전4승제) 1차전에서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의 역투에 힘입어 3-1로 승리했다.

개인 통산 첫 월드시리즈 선발 등판 경기를 가진 커쇼가 70닝 동안 1실점했지만 볼넷 없이 삼진을 11개나 잡아챘다.

커쇼는 이날 1-0으로 앞선 4회 휴스턴 알렉스 브레그만에게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1, 2, 5, 6회를 삼자 범퇴로 막는 등 이렇다 할 위기 없이 마운드를 지켰다.

특히 3회와 4회에는 6개의 아웃카운트를 모두 삼진으로 처리하는 등 휴스턴 타선을 압도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70닝 1실점 역투를 펼친 LA 다저스 투수 클레이튼 커쇼

커쇼의 후투 속에 다저스 타선도 크리스 테일러가 1회 선두타자로 나와

/뉴시스

월드시리즈 1~2차전 평균 티켓 가격 3164달러... 역대 두 번째로 높아

29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LA 다저스와 창단 55년 만에 첫 우승에 도전하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한풀이 시리즈가 그 열기만큼이나 티켓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다저스가 휴스턴을 상대로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한 가운데 이날 경기는 '가을 야구'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폭염 속에 진행됐다.

경기가 치러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은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시작 무렵 LA 도심 기온은 39도에 달했다.

정규시즌 100승 이상을 거두며 강력한 시즌을 보낸 두 팀의 대결인 만큼 무더위와 함께 팬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이러한 열기는 티켓 가격에서도 잘

드러났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1~2차전의 평균 티켓 가격은 3164달러(약 358만원)나 된다.

티켓 관련 사이트 '티켓아이큐'에 따르면 이는 월드시리즈 티켓 가격 중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시카고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 월드시리즈 평균 티켓 가격은 3480달러(약 394만원)였다.

가장 싼 티켓은 888달러(약 100만원)에서 가격이 시작된다.

가장 비싼 홈팀 더그아웃 뒤 앞에서 2번째 줄 4지리는 7만2008달러(약 8144만원)에 팔렸다.

좌석 1개 당 2000만원이 넘는 셈이다.

작년 컵스 홈구장에서 열린 3~5차

전 티켓 평균 가격이 7200달러(815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클라블랜드 인디언스 쪽으로 시리즈의 무게가 기울자 급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월드시리즈 평균 판매 티켓 가격은 2100달러(약 237만 원)로 지난 10년간 평균 월드 시리즈 티켓의 두 배가 넘는다.

1차전을 다저스가 승리로 장식한 가운데 남은 시리즈가 박빙으로 흐른다면 티켓 가격은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우승팀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6~7차전에서나 가려진다면 평균 티켓 가격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뉴시스

평창올림픽 '축하 K팝 콘서트' 내달 1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오는 11월1일 평화문 광장 특별무대에서 '2018 평창 올림픽 대회 개최 100일 전(G-100) 축하방송 축하 K팝 콘서트'를 연다.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날은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100일을 앞둔 시점이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오게 되는 올림픽 성화가 인천 송도에서 첫날을 보내게 되는

날이다.

이번 콘서트는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대장정의 시작을 축하하고, 개막까지 101일간의 성화 무사봉송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같은 시각 인천 송도 달빛축제 공원에서 펼쳐지는 성화봉송 축하 공연과 임시 성화대 점화 상황이 이연으로 연결돼 생생하게 전달된다. 평창올림픽 홍보대사인 가수 태양(박병)의 축하무대도 중계된다.

콘서트에는 문화한류의 주역인 방탄소년단과 엑소(EXO), 트와이스(TWICE) 등 최정상 K팝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번 응원 무대에서는 가수 양희은, 합창 가수 엠에프비티아이(타이거 제이케이, 윤미래, 비지) 등이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는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평창올림픽 주관방송사인 S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티켓 예매는 멜론 티켓을 통해 27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